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작품을 통해서 본 병(病)에 대한 수용자세

신윤주\*  
shin0613@deu.ac.kr

## <目次>

1. 들어가며
2.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만한 이곳저곳 (滿韓ところどころ)』
3. 병원 생활의 기록 『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
4. 『유리문 안에서(硝子戸の中)』 본 소세키와 병(病)의 관계
5. 마치며

主題語: 위장병(gastroenteropathy), 삶(life), 죽음(death), 심리(psychology), 자기 성찰(self-examination)

## 1. 들어가며

미즈카와 케이조(水川景三)는 「나쓰메 소세키의 『생각나는 일들』은 정신과 생활과 육체에 의한 아이러니(夏目漱石『思ひ出す事など』論精神と生活と肉体に於けるアイロニー-)」라는 논문을 통해 개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의한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가벼운 외상부터 다양한 질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소세키는 병상에서의 생활 즉 죽음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삶으로의 회귀를 다짐한다고 언급한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올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 잡지와 같은 각종 미디어에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병은 중요한 것만 골라서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3,000가지나 된다고 할 수 있다.(중략) 병의 증후(증상)란 단지 하나의 부수적 현상에 불과하며 그때그때의 인간의 개별성과 또 그의 특수한 삶의 운명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중략) ‘내면적’ 이유들이 있다. 가령 심리적 압박, 불안, 발전의 무능력과 정체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생성저해의 양(量)이 심적, 정신적 성장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병을 앓게 된다.”<sup>1)</sup>고 한다. 일본근대문학을

\* 동의대학교 문학인문교양학부 조교수

대표하는 일본국민작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라 함) 역시 병과 무관하지 않다. 장남호는 “지금까지 소세키의 병적에 관련된 연구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소세키의 신경쇠약이나 신경증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신체적인 병에 대한 연구는 이렇다 할 만 것을 찾아 볼 수 없다.”<sup>2)</sup>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소세키와 불안과 관련한 논문은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에게 늘 다양한 주제로 주목받아온 만큼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실로 다양하다.<sup>3)</sup> 이미 소세키의 많은 작품들과 신경쇠약 및 히스테리 그리고 불안과 관련하여 언급된 논문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1905)에서 고양이의 주인 쿠사미(苦沙彌)는 신경쇠약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문명에 대한 불평을 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1909)에서 다이스케(代助)는 사회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서양문명을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와의 괴리를 의미하는 신경쇠약 증상이 나타나는 인물로 묘사된다. 김숙희는 『문(問)』(1910)의 경우 ‘친구를 배반한 소스케(宗助)와 남편을 버린 오요네(御米)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불륜을 저지르게 된 부부의 삶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신경쇠약은 일상의 권태로운 질병의 면모를 보이면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작품의 주제인 소스케의 삶의 상실과 숨겨진 불안감이라는 모티브를 이 병이 지지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sup>4)</sup> 이처럼 소세키의 작품을 살펴보면 신경쇠약증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부분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는 전기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인 『문』을 집필하던 1910년 6월, 위궤양으로 입원. 8월에 이즈(伊豆) 슈젠지 온천(修善寺温泉)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중, 800그램의 피를 토하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을 겪는다. 의사의 기록을 보면 약 30분간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의 죽음의 체험과 병상에서의 생활은 이후의 작품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죽음의 체험과 병상에서의 생활은 소세키 아내 나쓰메 교코(夏目鏡子)의 기록물 「슈젠지의 대환」, 「병상일기」, 「경과」, 「도쿄로 돌아와 입원하다」, 「병원생활」, 「죽음의 잠자리」와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소세키의 위(胃)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위장약을 먹고도 배변활동에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시기로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변에 출혈이 보였던 시기로 위궤양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양을

1) 진교훈(2002)『의학적 인간학』서울대학교출판부, p.257

2) 장남호(2015)「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위장병 -『고양이』와 『만한 이곳저곳』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Vol.48, p.210

3) 권혁건(2006)「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생애를 통해 느꼈던 불안 고찰」『일본학보』제69집 참조. 河村邦光(1998)「身體病氣-神經衰弱とは何だったか-」『漱石がわかる』朝日新聞社

4) 김숙희(2009)「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과 병 -신경쇠약과 히스테리의 양상」『日語日文學研究』, p.106

위해 슈젠지 온천으로 가지만 1910년 8월 24일 교코의 기록을 보면 “토혈과 손발은 움직일 수 없었다”와 같이 병세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픈 소세키 자신의 기록을 보면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1910년 6월 6일부터 1910년 8월 23일 소세키는 일기 뒤에 그날그날의 메모를 하였다. “1910년 8월 23일 트림 비린내, 여전히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은 비길 데 없는 혈색<sup>5)</sup>이다. 소세키 아내 교코의 기록 “1910년 8월 24일 진찰 후 저녁 8시에 갑자기 토혈. 5백 그램이라고 함. 뇌빈혈을 일으켜 인사불성. 캄플 주사 15, 식염 주사로 약간 생기가 뛴. 다들 아침까지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함<sup>6)</sup> 전기에는 작품 속에서 죽는 인물이 거의 없지만, 후기의 작품에는 병고에 시달리는 인물과 자살하거나 죽는 인물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반면 후기 작품에는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그 관계 사이에서 내적갈등을 겪는 각 개인의 심리를 다루고 있다.

아내 교코에 의하면 “최근 삼월경부터 문장회라는 것이 매달 한 번씩 열렸습니다.(중략) 그 날은 아무 일이 없어도 아침부터 나도 부엌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저녁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소세키 집에서 모임이 개최되어 일어나는 생활의 변화를 전하고 있다. 또 큰딸 후데코는 당시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는 평생 서재의 사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거의 서재에서 생활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흔 가까이 되어서 소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흥을 타고 무리했던 것입니다.”라고 아이의 눈에서 본 아버지 소세키를 서재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 딸에게도 아버지의 기분이 좋고 나쁨은 절실한 문제인 듯, “기분이 좋을 때의 아버지는 부드럽고 반가움이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나쁠 때는 무서워서 집 안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라고 기록한다. 가정에서의 인간 관계에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주된 것이지만, 그 모두 소세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모든 인간관계에 크게 작동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육체로부터 겪고 있는 병, 즉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었던 소세키가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보고자 한 것을 역력히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소세키가 정신과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준 것은 역시 소세키의 아내 나쓰메 교코였다. 실제로 소세키와 아내 교코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그럼에도 소세키는 슈젠지에서 요양을 끝내고 도쿄로 돌아왔을 때 병간호를 해준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맙다” 한 마디의 의미는 소세키 가족에게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세키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위궤양과 관련한 일상이 여실히 잘 드러나 있는 작품, 무엇보다 직접 체험에 의한 경험, 수필에 가까운 작품을 추려보았다.

5) 나쓰메 교코·마쓰오카 유즈루 지음, 송태욱 옮김(2016)『나쓰메 소세키, 추억』현암사, p.250

6) 전계서, 『나쓰메 소세키, 추억』, p.251

그 중에서도 경미했던 위궤양이 집중적으로 발작되는 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どころ)』(1909), 병원에서의 일상이 잘 담긴 『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1910),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담긴 『유리문 안에서(硝子戸の中)』(1915),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소세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수용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만한 이곳저곳』

소세키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위궤양이다. 위궤양은 “과다신경성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sup>7)</sup>이 있는데 소세키 생애를 통해 살펴보면 소세키의 죽음의 원인인 위궤양은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소세키의 생애가 낳은 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양아들과 양자 체험, 소세키가 만주와 한국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동기를 만들게 했던 양부 시오바라 마사노스케(塩原昌之助)의 염치없는 금전 요구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위궤양에 걸렸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약 2년간의 영국 유학시절이다. 당시 외국인으로서의 연구에 대한 한계, 부족한 유학비, 『문학론』 집필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소화불량은 위(胃)가 쇠약해지는 원인을 충분히 제공했을 것이다.

소세키는 일생에 두 번 해외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00년 9월 8일부터 1903년 1월<sup>8)</sup>까지의 영국 유학, 두 번째는 1909년 만주와 한국여행을 위해서였다. 아시아 체험이라고 하면 1909년 만주와 한국 여행을 들 수 있다. 소세키의 만주와 한국여행은 그의 대학예비교 시절 친구이자 1896년에 설립한 일본의 반관반민의 국책회사로 만주경략상의 중요 거점이 되었던 남만주 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총재였던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의 초대로 이루어진 여행이었다. 만주와 한국 여행은 소세키에게 있어서 영국유학에 이은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그러나 유학생의 신분으로 영국에 갔을 때와는 분명 달랐다. 영국유학은 소세키의 『문학론(文學論)』 서(序)에 의하면 문부성(文部省)으로부터 지급받는 학비가 불충분하여 책을 구입하기 위해 종종 식사를 걸러야 하는 쓸쓸하고도 힘든 여행이었다. 그러나

7) 삼육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2000) 『생명자원과학개론』 유한문화사, p.80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위장 내부가 비어 있을 때 염산이 분비되면 위장 벽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 위궤양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의 양이 현저히 증가되어 위궤양 원인이 된다.

8) 1900년 9월 8일 독일 배 프로이센호를 타고 요코하마 항구를 출발하여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 41일째 되는 날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에 입항. 다음 날 파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10월 21일 파리에 도착한 소세키는 거기서 열리고 있었던 만국박람회를 구경하고 10월 28일 도버 해협을 건너 런던에 도착. 1902년 12월 5일 런던을 떠나 다음해 1903년 1월 고베항에 도착해 도쿄로 돌아왔다.

당시의 만주는 식민지 경영을 착수한 땅으로 그곳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친구의 초대였기에 소세키에게 있어서는 불안이 없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여행이었다. 더불어 신문사에 적고 있는 42세의 소세키가 어떠한 책임도 없는 체재일도 확실치 않는 여행에 나섰다는 것은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다. 42일간의 긴 여행이었다. 소세키는 이 여행을 『만한 이곳저곳』이라 하여 1909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1회에 걸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했다.

『만한 이곳저곳』을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나마 출발당시 소세키의 상태를 알 수 있다. 1909년 8월 중순 쯤 소세키는 제코로부터 몇 월 며칠에 배편으로 시모노세키를 출발할 예정이니 관촬했느냐는 편지를 받고 승낙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급성 위장병에 걸렸다. 약속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소세키 입장에서는 출발 날짜까지 몸이 완쾌 될 수 있을지 보증할 수 없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면 제코와의 약속은 물론이고 만주에 가는 일정도 모두 뒤죽박죽되었다. 그런 상태에서도 소세키는 제코에게 먼저 출발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행동을 미루어보면 만주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의 위는 가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밥그릇이 부딪치는 소리에도 화가 치밀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세키는 복통과 설사, 치질의 한 가지인 치루(痔漏)등의 지병을 갖고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유쾌한 여행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42일간이라는 만주와 한국으로의 여행이 긴 시간 움직여야만 하는 교통수단과 타국에서의 식사는 소세키의 병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만한 이곳저곳』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스스로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죽음 자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로 인해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만주여행에 대해 강한 아쉬운 마음과 허탈함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작품의 마지막은 작품을 신문에 연재하다보니 12월 31일이 되었고 연재를 다음 해로 넘겨가면서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작품을 그만 마무리 하겠다는 소세키에게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으로부터 암살 되어 조선에 대한 인상을 세세하게 기록하기에는 다소 일본 사회 분위기로 미루어 봤을 때 조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문 연재 작품으로 표현해 낸다는 것에 심리적 압박 혹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세키에게는 적어도 해외로의 시선을 돌려 떠난 여행기록물이었던 『만한 이곳저곳』이라는 작품을 쓴 덕분에 죽음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었던 우울한 사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여행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받은 따뜻함과 웃음, 생소한 문화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일종의 정신적 순환이 가능했던 계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병원생활의 기록 『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

특히 여행 바로 다음해인 1910년 『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sup>9)</sup>을 쓴다. 작품 『생각나는 일들』의 주요 공간은 병원이다. 소세키의 말년, 그에게 있어 병원은 곧 집이 되어 버렸다. 작품은 모두 3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의 끝말에 슈젠지에서 의식을 잃고 도쿄의 집에도 들리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간만큼 “그날 밤부터 나는 병원을 제2의 집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소세키가 위궤양 진단을 받고 슈젠지에서 요양 중 온천에서 대량의 피를 토하고 인사불성에 빠져 슈젠지로 가기 석 달 전의 병원, 같은 병실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각나는 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작품 곳곳에 하이쿠와 한시는 소세키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세심하고 정교한 문체로 소세키의 신체의 부자유가 주는 인간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끔 한다.

무엇보다 『생각나는 일들』은 소세키의 병실 생활의 단면과 더불어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불안,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을 건강한 일반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소세키는 담담히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만큼 소세키 스스로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나 병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는 일을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낸 고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생각나는 일들』은 소세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경쇠약과 위궤양이라는 병이 소세키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읽어내는 자료로 삼을 만한 작품이다.

석 달 전 병원을 나설 때, 의사는 머물고 있는 곳을 바꾸어 보라고 했었다. 나 역시 의사의 말에 따라 숙소를 바꾸어 보았으나 바뀐 숙소에서 다시 병에 걸려 혼수상태로 도쿄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도쿄에 도착해서도 자신의 집에는 들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병원에 입원할 운명이 되리라고는 더더욱 예상치 못했다.(1장)

소세키 스스로도 신체의 나약함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음을 ‘나’를 통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나’는 슈젠지에서 도쿄로 돌아올 때에도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거의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목례 정도로 예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마치 동굴 밑바닥에 버려진 존재」로 의식하기까지 한다. 위독한 상태에 있던 그 무렵 병원장 나가요(長興)의 상태가 나빠진 시점이었고 ‘나’가 의식을 찾을 무렵 병원장 죽음을

9) 1910年 - 1911年、『朝日新聞』(1911年8月)、春陽堂刊『切抜帖より』収録

맞아한다. 가족들과 주변사람, 병원관계자들은 의식이 돌아온 ‘나’에게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무사히 도쿄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지만, 죽은 사람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살아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고되다는 것, 더불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중적 감정이 드러나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한다. 그 이중적 시선은 나가요(長興) 원장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아침 제임스 교수<sup>10)</sup>의 부고를 접하면서 명확히 드러난다. ‘나’의 문학적 신념과 교수의 철학적 주장이 서로 상통한다는 점에서 제임스 교수의 책 속의 문장에서 늘 감동받고 학문에 대한 정신적 교류를 나누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병에 여러 가지로 호의를 베풀던 나가요(長興) 원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죽어있었고, 병상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의 의식에 빛을 주었던 제임스 교수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었음을 직시했을 때, 세 사람 중 오직 ‘나’만이 살아있음을 동시에 깨닫는다. 사람의 생애에서 한두 번 겪게 되는 병에 대한 체험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병이 들었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매일 기록하고 싶었지만 펜을 잡을 수 없을 때 무력감에 대해서도 담담히 수용한다.

회상 속에서 내가 회상해 놓은 내용도 시간이 가면 그 색채를 잃게 될 것이다.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이후,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당연히 많다. 내가 펜을 들고 무엇인가를 적어 놓는다면 그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시 느끼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다.(3장)

홀로 병실에서 나가요(長興) 병원장의 죽음과 제임스 교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아직 눈을 뜨고 살아 있다는 것, 완쾌할 수 없음을 알게 된 후 병상에서 겪고 있는 내면의식의 변화가 단편적으로라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 마음 안에는 결국 자유로울 수 없는 육체적 무력감을 담담히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소세키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막중한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는 늘 생존 경쟁의 무대에서 신음하는 존재다. 자신이 건강하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강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생존 경쟁의 무대에서 악전고투를 반복해야 한다.(5장)

병에 걸리면 쇠약한 육신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힘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 이쁜 사람을 위로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에서 떨어진 자로 치부시키는 생존 경쟁의 무대의 실정을 언급한다. 병이 들고 나서야 젊은 시절 건방졌고 말투가 거칠었던 시절을 돌아보고 인간이

10)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실제로 소세키에게 문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 겸손함을 알게 해주는 것 소세키에게 병이란 그런 것이었다. 불혹의 나이를 넘은 ‘나’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를 일에 죽는 순간까지 머리를, 손을, 온 육신을 쓸 수 있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삶에서의 고단함조차도 이겨내야 함을 강조한다.

8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육체적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묘사된다. 병이 인간에게 주는 무력감이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느낀다. 8장의 시작은 “잇을 수 없는 8월 24일에서 이 주 일전부터, 나는 이미 병들어 있었다”로 시작된다.

토한 다음에는 기분이 좀 나아져서 음식을 조금 넘겼다. 음식을 먹었다는 즐거움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중략)나는 내가 토해 놓은 대야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체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질문했다. 의사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그것은 피라고 말했다. (중략) 목구멍을 올라올 때 심한 냄새가 코를 찔렸다. 나는 가슴을 눌러가며 피다, 라고 말했다 (중략) 아침저녁으로 격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사십 년 동안 단련되어 온 내 두뇌는 현실적인 고통 앞에 허수아비가 되었다. 하룻밤이라도 고통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 내 관심사의 전부였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잘라 개에게라도 주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게 아니라면 이 단조로운 의식을 누군가에게 주어 버리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었다.(8장)

위의 텍스트를 통해 소세키에게 음식, 육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무릇 짐작케 한다. 「음식을 먹었다는 즐거움」이란 소세키에게 그냥 작품에 쓰여진 문구는 아닌 것으로 읽힌다. 세키카와 나쓰오는 “청년기부터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했으면서도 소세키는 먹보였다. 술은 잘 못 마셨지만 단 것은 좋아했다. 교코 부인의 눈을 피해서 과자를 먹고 나중에 속쓰림과 트리트함을 호소해서 부인에게 혼나곤 했다. 이날 아침도 부인의 시끄러운 입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아침부터 세 그릇이나 밥을 먹은 것이다.”<sup>11)</sup>라고 지적한다. 오십 그램의 음료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가엾다는 느낌을 받아야 했다. 잠을 자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며 많은 음식을 차려 지인들을 초대해 함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유일한 ‘나’에게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게 한다. ‘의식을 누군가에게 주어 버리고 싶다는 살아서 느끼는 고통을 죽음을 통해 덜 느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앞의 텍스트를 통해 소세키는 인간이 육체적 고통이

11) 다니구치 지로, 세키카와 나쓰오(2015)『도련님의 시대5』세미콜론, p.175

한계점에 도달할 때 즈음 표현 할 수 있는 문구란 신체의 일부를 잘라 개에게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오직 고통이 없을 수 있는 것만이 관심사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통해 고통만이 전부라면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게 한다. 슈젠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13장에는 다량의 피, 뇌빈혈로 인한 인사불성과 같은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하며 육체의 고통만큼 마음에 많은 번민이 어떤 것인지 묘사된다. ‘나’는 슈젠지에서 두 달 하고도 닷새나 체재하는 동안 어떻게 생각해도 삶과 죽음이라는 두 대상은 ‘나’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점점 나약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신체상의 변화였다. (중략) 갑자기 손의 주인이라도 바뀐 듯 팔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이를 번거롭게 하기는 싫었다. 무리하게 팔꿈치를 굽혀 손목에서부터 손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고작 몇 센티미터 정도 움직일 뿐 쉽지 않았다. (중략) 이윽고 주변에 있던 하녀가 내 팔을 잡고 무리 없이 내려 주었다. 나는 내 자신이 이 정도로 무기력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중략) 토혈이 내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몸의 극히 일부조차도 움직임이 힘든 ‘나’는 하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느낀다. 병원 생활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신체의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해지는 신경증, 좁디좁은 병실이라는 세계에 살아 있음을 느끼는 일이 일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편으로 이중적인 심리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데 ‘나’는 점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으며 괴로움을 참아내는 동안 ‘나’를 간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신(神)과 같은 존재들로 보기 시작한다. 병이라는 것을 얻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스스로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생각나는 일들』에 삶과 죽음, 병이라는 단어는 작품의 각 장마다 빈번히 등장한다. 특히 ‘800그램의 토혈’, ‘잇을 수 없는 14일’은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의식에서 그의 체험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음을 짐작케 한다. 미래를 점쳐주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스님에게 자신의 미래가 어떤지 물어본다든지, 점쟁이를 데리고 들어와 병원 처방보다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들었던 환자들을 보며 미신적 사상에 자신의 운명을 의지하고 기대고자 한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심정으로 읽힌다. 1910년 6월 초순 소세키는 위궤양 진단을 받고 8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슈젠지 기쿠야 본점에 머무르며 병든 몸을 요양했다. 위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본 논문의 2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소세키는 1909년 가을, 만주와 조선 여행을 앞두고 병이 더욱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10년 도쿄(東京) 우치사이와이쵸(内幸町)에 있는 나가요(長興) 위장병원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고 입원, 7월 31일 퇴원하면서 의사에게 슈젠지를 추천받고 요양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도쿄로 돌아온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1911년 2월에 퇴원을 했다. 마흔 세 살의 소세키는 슈젠지 온천에 온 이후 약 20일쯤 지나 500그램의 토혈을 한 뒤 30분쯤 의식불명 상태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데 이때의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병에 대한 이야기가 작품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에세이형식으로 쓴 작품이 바로 『생각나는 일들』이다. 『생각나는 일들』의 마지막에는

연말이 가까이 다가왔어도 또 봄이 다가온다 해도 특별한 감정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환자 생활도 이제는 매우 익숙한 상태였다. 마흔네 살의 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간호사의 예언대로 형식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정월 떡을 먹게 되었다. 나는 정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무런 시심(詩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조그만 떡 하나를 입에 넣었을 뿐이었다.(33장)

퇴원 후 한 달이 지나 소세키가 과거 슈젠지에서의 병상체험을 떠올리며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수없이 반문하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생각나는 일들』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햇빛을 보고 창밖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일상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적 무력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 이어져서 결국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느낀다. 즉 소세키에게 병은 육체적 고통이 결국 정신을 지배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 작동할 수 없는 무력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 4. 『유리문 안에서』 본 소세키와 병(病)의 관계

『유리문 안에서』<sup>12)</sup>를 집필했던 해인 1915년 1월 1일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 앞으로 보낸 신년 연하장을 통해서 「올해는 내게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죽을지도 모른다(今年は僕が相變つて死ぬかも知れない)」<sup>13)</sup>고 만년에 이른 소세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음을 알

12) 1915년1월-2월, 『朝日新聞』(1915년3월)岩波書店

13) 荒正人(1979)『漱石研究年表』『漱石文學全集』別卷、集英社、p.507

수 있다. 『유리문 안에서』는 1914년 연말에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측으로부터 신년을 맞이하여 집필을 권유받고 1915년 1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39회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이렇게 연재한 산문을 모아 탄생된 작품이다. 특히 만년 소세키의 인간관과 인생관을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소세키 산방이라고 불리던 자신의 집 안 서재의 유리문을 자신의 내면과 바깥 세계를 경계 짓는 은유로 불안했던 어린 시절 영국 유학으로 인해 발병된 신경쇠약증, 위궤양에 의한 질병에 시달려야 했던 괴로움, 사람들과의 교류하면서 발견한 다양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소세키는 반년이상 긴 투병생활을 하는데 그 뒤 해마다 한 번 꼴로 위병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다. 게다가 1912년에서 1914년에 걸쳐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추측컨대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 앞으로 보낸 연하장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담은 것은 이러한 심신 상황에서 연유된 것이다. 권혁건은 소세키가 『유리문 안에서』를 집필할 즈음 심신의 병도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상당히 밝은 톤으로 채색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 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sup>14)</sup>고 지적한다.

소세키는 1916년 죽을 때까지 거의 해마다 위궤양이 재발하여 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늘 병을 안고 살았던 그가 육체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보다 죽음이 더 나은 지도 모른다는 생각, 끝내는 죽음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여긴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민주와 조선에서의 체험 중심이었던 『만한 이곳저곳』과 수젠지에서의 병원 체험이었던 『생각나는 일들』과는 달리 죽음에 대한 사상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6장에서 8장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등장하면서 여자가 지내온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여자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만약 선생님이 소설을 쓰신다고 하면 그 여자의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소세키는 ‘죽음은 삶보다 고귀하다’라며 죽음이 인간이 귀착하는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이라는 경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삶보다는 더 편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느 때는 그것을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고(至高)한 상태라고 여길 때조차 있다. (중략) 하지만 현재의 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 있다. 내 부모, 내 조부모, 내 증조부모, 그리고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가면

14) 권혁건 외(2001)『나쓰메 소세키 문학연구』J&C, p.483 참조.

백년 이백년 내지 천 년 만 년 사이에 길들여진 습관을 내 한 대(代)에서 해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문 안에서』8장)

이것이 ‘만약 살아 있는 게 고통이라면 죽는 게 더 좋겠지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 또한 ‘불유쾌로 가득 찬 삶을 초월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소세키가 문하생이었던 하야시바라 고조(林原耕三) 앞으로 보낸 편지에 의하면 자살은 부정했던 소세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의식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식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네. 죽어도 나는 있지. 게다가 죽고 난 다음 비로소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네.(중략) 나는 삶의 고통을 싫어함과 동시에 무리해서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고통을 가장 싫어하네. 그래서 자살은 하고 싶지 않네.

소세키는 여인에게 세월이라는 약을 처방해 줌으로써 그녀에게 죽음 이상으로 괴로운 상처가 치유되는 쪽을 권한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연의 일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각오와 결의에 의해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세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보여 진다. ‘나’는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꼴로 병치레를 하고 있고 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나 똑같은 위(胃)의 고장이기 때문에 일을 당하면 절식 요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늘 듣는다. 의사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병의 성질 자체가 ‘나’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절식을 강요받는 것이었다. ‘나’는 어째서 다병한 자신이 살아남아 있는 것인지, 인간의 수명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병환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 뭐 그러저럭 살고 있습니다.”, “병은 아직 계속 중입니다.”와 같은 스스로 생각해도 명확하게 답을 해 줄 수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두려고 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표현할 만한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마치 독일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병마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신과 마주앉을 수 있는 건 천하가 태평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참호 속에 들어가 병마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난세(亂世)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30장)

결국 우리들은 제각기 죽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직면하게 되어 있다. 다만 소세키는 병원과 집을 자주 오고가면서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매 순간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일상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 인간의 도리를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어쩌면 소세키가 전업 작가가 된 이후 늘 강조했던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와도 일치한다.

## 5. 마치며

소세키의 처녀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관한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죽음은 삶보다 고귀하다, 「죽음이 인간이 귀착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현실에서는 위궤양이 미비하게 발발되었던 시기에 『만한 이곳저곳』에서 육체적 고통에 대해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표현했던 그가 『생각나는 일들』을 통해 긴 병원 생활에서의 고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몇 년 후 『유리문 안에서』를 통해 담담하게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수양아들과 양자 체험, 양부 시오바라 마사노스케의 금전 요구, 영국유학 시절 불규칙한 식사, 집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유학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위궤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걸린 위궤양은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작품 『만한 이곳저곳』을 통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신과 결부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정했던 대로 만주로 출발할 수 없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의 몸 상태가 나빠져서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신의 의지대로 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일들』에서 ‘나’는 소세키와 동일시 읽을 수밖에 없는데, 병을 앓고 나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작품 속에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 제목처럼 『생각나는 일들』은 평범한 개인의 병상일기에 불과하다. 영국 유학을 끝내고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쌀밥을 보았을 때와 같이 그 행복감은 일상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소세키 자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동안에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들,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죽음이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동시에 자신을 간호해 준 아내나 의사, 간호사, 젊은 제자들, 심지어 병문안을 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소세키에게 감사함이라는 마음은 결국 가장 인간다운 마음으로, 건강할 때는 그것을 감추고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유리문 안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있는 여인의 참담한 상황을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죽음보다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세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권한다.

다. 즉,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더라도 그 고통을 자연의 일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각오와 결의에 의해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체험이 곧 소재가 된 『만한 이곳저곳』, 『생각나는 일들』, 『유리문 안에서』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의 나약함에 통감한다. 이는 결국 깊은 내면에 대한 성찰과 죽음에 대한 응시를 통해서 우리자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끔 하는 동시에 소세키의 삶에 대한 애착, 나아가 죽음을 자연의 이치 그대로 의연히 수용하고 있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혁건(2006)「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생애를 통해 느꼈던 불안 고찰」『일본학보』제69집  
권혁건 외(2001)『나쓰메 소세키 문학연구』J&C, p.483  
김숙희(2009)「나쓰메 소세키(夏木漱石) 문학과 병 -신경쇠약과 히스테리의 양상」『日語日文学研究』, p.106  
다니구치 지로, 세키카와 나쓰오(2015)『도련님의 시대5』세미콜론, p.175  
삼육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2000)『생명자원과학개론』유한문화사, p.80  
장남호(2015)「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위장병 -『고양이』와 『만한 이곳저곳』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Vol.48, p.210  
진교훈(2002)『의학적 인간학』서울대학교출판부, p.257  
石原千秋(1999)『漱石記號学』講談社  
水川景三「夏目漱石『思ひ出す事など』論-精神と生活と肉体に於けるアイロニー-」  
荒正人(1979)「漱石研究年表」『漱石文学全集』別卷, 集英社, p.507  
芳川泰久(1994)『漱石論』河出書房新社

---

논문투고일 : 2017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

< 要 旨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작품을 통해서 본 병(病)에 대한 수용자세

신윤주

우선 『만한 이곳저곳』을 통해 스스로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죽음 자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로 인해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만주여행에 대해 강한 아쉬운 마음과 허탈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행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받은 따뜻함과 웃음, 생소한 문화에 대한 놀라움은 일종의 정신적 순환이 가능했던 계기를 만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만한 이곳저곳』 집필을 통해 죽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우울한 사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일들』은 평범한 개인의 병상일기에 불과하지만 중심인물 '나'는 소세키와 동일시 읽을 수밖에 없으며, 병을 앓고 나서야 삶의 진정한 행복,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라는 마음은 결국 가장 인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리문 안에서』를 통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더라도 자연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각오와 결의에 의해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 작품을 통해 인간의 몸은 자연과 같은 이치이므로 육체의 고통은 결국 죽음에 대한 응시를 통해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자세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A Study on Acceptance Posture for Disease-Focussed on Natsume Soseki's Three Novels

Shin, Yun-Ju

The warm heart, laughter, and surprise of the unfamiliar culture from various people whom the writer met and experienced on the journey through 『Manchuria and Korea, Here and There』 make him have a kind of spiritual cycle. At least, through 『Manchuria and Korea, Here and There』writing, the author could have escaped the gloomy contemplation of the close relationship with death. In fact, it reveals the strong regret and frustration of the journey to Manchuria, which had to be put off due to its own health condition, rather than positively accepting death itself. Next, 『Omohi dasu koto nado』 may be nothing more than an ordinary personal bedside diary, but the Hero of the work as the central person, 'I', must be identified with the artist Soseki, the writer expresses in detail that the true happiness of the life he feels after suffering from illness and the appreciation of the people around him are the most human-like mind in the end. Finally, even though pain is more painful than death, it should be accepted as part of nature and made worthy of human determination and resolution in the 『Garasu do no uti』. Through these three works, the artist believes that the physical body is the same nature as nature, and physical pain leads to the gaze of death. Therefore, the writer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the posture that reflects ourselves fundamentally.